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 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자기를 고양하여 앞서 경험한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쉽게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자기이다. 자신을 빛나게 해 주는 물건을 소유하면 자신의 물질적 자기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사회적 자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손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정은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어 결국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인 자아 존중감이 상승한다. 그런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외부에 보여 주어야 한다. 즉 과시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지위 상승 욕구를 지니고 있는 동물로 본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를 원하지, 더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싸고 희귀한 제품, 즉 ㉠명품 소비를 통해 지위 상승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중략)

한국은 대체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얼마나 아는지가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관계주의 문화의 좋은 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사실 한국의 관계주의에 대해 단점을 더 쉽게 떠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계의 힘이 클수록 개인의 자유 의지가 집단의 주된 흐름으로부터 분리되기 어렵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즉 동조(同調)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동조 행위는 소비 현장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행에 따른 소비이다. 무언가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회자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유행에 뒤쳐진 것처럼 여겨지고, 유행하는 제품을 사거나 하면 최소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행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 소비가 만연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스스로 내적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한 확신을 외부에서 얻게 되는 것이다.

[나] 포그의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뭍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곧 바로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었는데, 실제로는 약 80km 구간에 철길이 놓여 있지 않았다.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 한다.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자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한다. 포그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포그에게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포그는 이러한 충고에 대해 숙고한 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이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값의 스무 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내기 총상금을 고려할 때 코끼리 구매에 1,000파운드를 지불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략)

이를 경제학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포그의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지불 용의 가격’은 다른 일반 여행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불 용의 가격**이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위해 지불하겠다고 마음 먹은 금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다] 내가 합리주의라 할 때는 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논할 때는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와 오류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통해, 나아가 자기비판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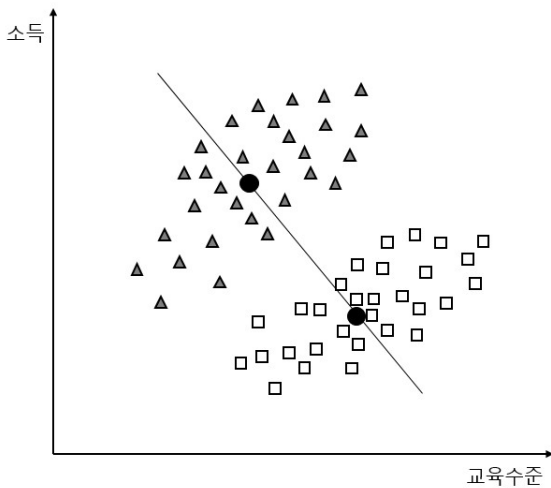
합리주의자는 한마디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다른 이에게서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아가 남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대한 남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남의 생각을 신중히 비판함으로써 타인에게서 기꺼이 배울 의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판,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적 논의’이다. (중략) 인간의 관념에 한해서는, 오직 비판적 논의만이 찌꺼기에서 낱알을 가려낼 수 있다. 한 가지 관념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 데 필요한 성숙함은 오직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중략) 합리주의자는 비판적 논의의 근본이 되는 ‘주고 받기 (give and take)’ 태도가 철저히 인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비판적 논의에 임하려면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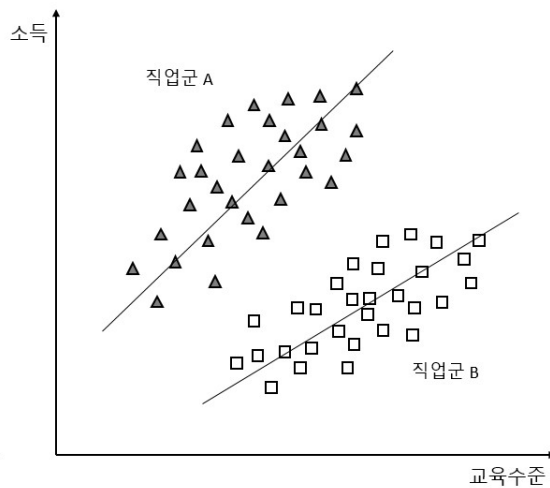
[라] 최근 데이터 사이언스, 빅 데이터 같은 말들이 유행이다. 기술의 발달, 특별히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지식은 힘이 되 얇은 지식은 독일 수 있듯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어설픈 데이터 사이언스는 잘못된 해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맞붙었던 2000년 대선에서 미국은 일명 레드 스테이트(공화당을 지지한 주)와 블루 스테이트(민주당을 지지한 주)로 나뉜 것처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거 결과 민주당을 지지한 주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요한 주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다. 반대로 미국 중부와 남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 중에서 공화당을 지지한 주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부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

컬럼비아대학의 통계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앤드루 겔만은 비롯한 여러 학자가 지적했듯이 이는 대표적인 생태학적 오류의 사례이다. 미국의 대선 결과 분석에서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분석의 기준은 개인이다. 개인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투표 패턴이 바뀌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위 논의에서 따지고 있는 경제적 조건은 개인의 경제적인 조건이 아니라, 각 주의 경제적 조건이다. 만약 주별로 개인의 소득과 투표 성향의 관계를 분석했다면, 주의 평균소득과 평균 투표 성향 간 관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마]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란 개인 수준의 관계를 해석할 때 집단 수준에서 도출된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여기서 ‘생태’란 개인보다 큰 단위로서 집단이나 체제 등을 지칭하는 말이다. 생태학적 오류를 보여 주기 위한 간단한 예로서, 한 연구자가 개인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연구자는 두 직업군(각 30명)에서 일하고 있는 60명의 직장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생 받은 교육의 수준과 현재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림 a]와 [그림 b]는 동일한 자료에 나타나는 다른 관계의 산포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a]는 전체 집단의 교육수준과 소득 간 산포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그림에 있는 두 개의 굵은 점은 각 집단의 교육수준 평균과 소득 평균이 만나는 점), [그림 b]는 직업군별 교육수준과 소득 간 산포도를 보여 주고 있다. 두 그림에서 산포도 위에 표시된 직선은 교육수준과 소득 간 관계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림 a] 교육수준과 소득의 전체 집단 관계



[그림 b] 교육수준과 소득의 직업군별 관계

1

(1) 위 ㉠과 ㉡의 소비에 대해 제시문 [나]의 ‘지불 용의 가격’ 측면에서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동조 행위와 제시문 [나]의 코끼리 구매 행위를 평가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에 제공된 생태학적 오류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림 a]와 [그림 b]가 보여 주는 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설명하시오. 또한 제시문 [마]의 두 그림 중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I]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물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물가지수를 이용하면 두 시점 간의 물가 변화, 즉 물가상승률을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의 물가지수가 100이고 2016년의 물가지수가 105이면, 2016년 1년 간의 물가상승률은 5%이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액수의 돈을 가졌더라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적어진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을 이용하면 화폐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물가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의 기준년 대비 비교년 물가 비율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N$ 개의 대표 상품들이 있고, 기준년이 2020년인 경우,  $t$ 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sum_{i=1}^N \left( W_i^{2020} \times \frac{P_i^t}{P_i^{2020}} \right) \times 100$ 이다. 여기에서 각 상품의 가중치  $W_i^{2020}$ 은 기준년 2020년에 소비자들이 상품  $i$ 에 지출한 금액이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P_i^t$ 는 상품  $i$ 의  $t$ 년도 가격이고,  $P_i^{2020}$ 은 상품  $i$ 의 2020년도 가격이다. 산식으로부터 기준년인 202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t$ 년도의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t\text{년도 물가상승률}(\%) = \left[ \frac{t\text{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t-1)\text{년도 소비자물가지수}}{(t-1)\text{년도 소비자물가지수}} \right] \times 100$$

[II] 이자율은 물가 변동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로 구분할 수 있다.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며,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가격이 100만 원인 상품을 살 수도 있고, 명목 이자율 3%의 1년 만기 예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금을 선택한 경우 1년 후에 받는 원금과 이자의 합은 103만 원이다. 만약 1년 후 해당 상품의 가격이 100만 원으로 일정하다면, 예금으로 얻게 된 금액으로 그 상품을 한 단위 사고도 3만 원이 남게 된다. 이는 예금에 투자되었던 100만 원의 구매력이 1년 후에 더 커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그 상품의 가격이 1년 후에 105만 원이 되었다면 예금으로 얻게 된 103만 원으로는 해당 상품을 살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예금에 투자되었던 100만 원의 구매력이 1년 후에 더 작아진 것이다.

따라서 가계가 예금에 투자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에서 예상 물가상승률을 뺀 예상되는 실질 이자율이 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실질 이자율로 얻어지는 수입이 우리가 예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기 때문이다.

- (1) A국과 B국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는 상품은 쌀과 소고기뿐이고, A국과 B국 간에는 무역 및 노동 이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상품 가격 및 상품별 지출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다. 두 국가의 화폐 단위는 각각  $\alpha$ 와  $\beta$ 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 두 국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각각 구하시오. [12점]

**A국과 B국의 상품 가격 및 상품별 지출 비중**

A국	쌀	소고기	B국	쌀	소고기
2020년 가격	$100\alpha$	$1,000\alpha$	2020년 가격	$100\beta$	$1,000\beta$
2021년 가격	$102\alpha$	$1,030\alpha$	2021년 가격	$130\beta$	$1,200\beta$
2020년 지출 비중(단위: %)	60%	40%	2020년 지출 비중(단위: %)	40%	60%

- (2) 두 국가의 2021년 물가상승률을 구하고, 두 국가의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비교하시오. [8점]
- (3) A국의 2022년 물가상승률이 앞서 구한 2021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될 확률은 0.5이고, 2.6%가 될 확률은 0.5이다. 반면 B국의 경우, 2022년의 물가상승률이 앞서 구한 2021년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될 확률은 0.5이고, 25%가 될 확률은 0.5이다. A국의 1년 만기 명목 이자율 5% 예금과 B국의 1년 만기 명목 이자율 26% 예금 중에서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단, A국과 B국 간의 환율은 일정하고, 예금과 관련된 다른 추가 비용 및 예금 이외의 다른 투자 방식은 없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 이외에 다른 불확실성은 없다고 가정한다.) [10점]